

매일 마셔야 하는 우리우유, 지속적 운동 전개로 북한어린이들의 바른성장을



이 용우
충남도지회장

통일부에서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차원에서 북한에 각종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직접 농산물, 농업생산 원자재 등 농업관련 지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 대북지원 농산물의 경우 일부 외국 수입산에 중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이제 질 좋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지원으로 더욱 신뢰를 쌓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우유의(국내산) 대북 지원의 당위성을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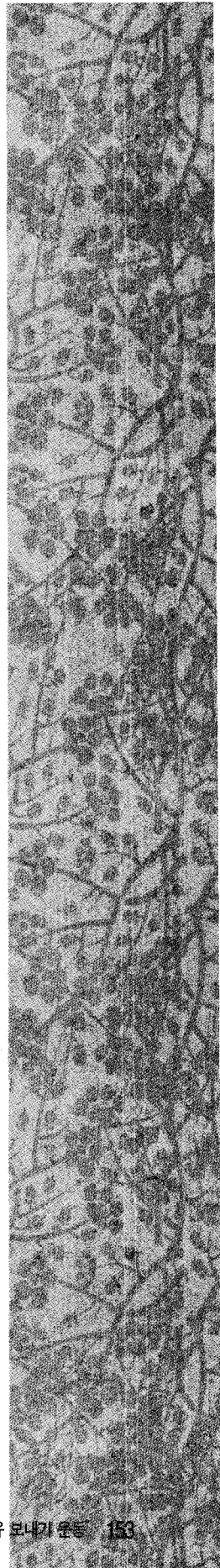
과연 젖이란 무엇인가?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먹이기 위한 최고의 식품이 젖이 아닌가. 어미가 자기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 생산한 식품에 어떠한 유해물이 첨가될 수 있겠는가? 최고의 모성애를 발휘하여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래서 우유가 영양공급을 위한 최고의 식품이라 할 만큼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유를 학교급식의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우유에는 적절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군 등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 즉 우유만 먹고도 충분한 영양섭취와 성장 발육에 지장이 없다. 특히 우유의 칼슘은 기타

식품에 비하여 2~3배 이상 흡수율이 높으므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식품이고 칼슘 공급원으로 우유보다 좋은 식품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만일 성장기 어린이에게 칼슘이 부족했을 때 각종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칼슘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의 골격 생성 및 발달, 치아의 영구치로서의 전환에 영향을 주어 10세 이후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칼슘의 충분한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칼슘부족은 어린이의 골격석회화가 불충분하게 되어 성장하면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발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순환계 질환이나 대장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우유의 평균섭취량이 많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섭취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주변에 이러한 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우유가 그들에게 필요한 때이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남북어린이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 영양식품인 우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예는 많다. 우리 집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내가 목장을 하는 덕에 우리 아이들 3남매는 물대신 우유를 먹다시피 하면서 자랐다. 큰딸은 그런대로 먹었지만 둘째딸은 잘 먹지 않아 저희 엄마와 싸워가면서 먹었다. 막내 아들이야 말로 정말 물대신 우유를 먹고 자랐다. 그 결과 큰딸은 170cm, 작은딸은 164cm, 막내아들 녀석은 190cm 정도로 키가 컸다. 참고로 나는 162cm 아들 엄마는 158c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만큼 우유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우리는 TV, 신문 잡지 등에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봐왔다.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것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부모.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정부에서도 통일대비 및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의 수준차이 때문에 통일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한다. 향후 정신적, 경제적인 차이만을 가지고도 통일 후 상당한 괴리가 생길텐데 하물며 체격차이까지 난데서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동년배 남북한 어린이의 체격을 비교해보면 키의 경우 최고 26.7cm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20.5k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 수치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 남과 북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과 서양인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남북간에 이러한 체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일이 된다면 서로간의 이질감으로 서로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동안 민간차원(우리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유(분유)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어린이의 고른 성장과 나아가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후 사회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하였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우유가 그들에게 필요한 때이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남북어린이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 영양식품인 우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반짝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남과 북이 동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